

# 고용 '회복세' vs 자영업 '침체'...시장 양극화 심화

## 호남지방데이터청 '3월 지역 고용동향'

3월 광주·전남 취업자 수 177만9천명  
전년 동월비 8천명 늘어 '수치적 증대'  
자영업자 2만명 ↓·올해만 6만명 감소

지역 취업자 수가 증가하며 고용시장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는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2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호남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3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역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177만9천명(광주 77만8천명·전남 100만1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천명 증가했다.

연령대별 고용 상황을 반영하는 15-64세 고용률은 광주가 61.2%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으며 전남은 65.5%로 같은 기간 0.3%포인트

올랐다. 산업별로 보면 일부 업종에서는 고용 개선 흐름이 나타났다.

광주는 전기·운수·통신·금융업에서 1만3천명(14.2%) 증가했으며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9천명(2.7%), 건설업 1천명(1.2%) 등에서도 증가세를 보였다.

전남 역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1만2천명(3.5%) 늘어났고, 전기·운수·통신·금융업과 제조업에서도 각각 7천명(9.6%), 8천명(7.2%) 증가하며 일부 산업에서 회복 흐름이 감지됐다.

반면 내수와 직결된 업종에서는 고용 부진이 이어졌다.

광주는 제조업에서 1만명(8.9%)이 감소했으며 도소매·숙박·음식점업도 6천명(4.0%), 농림어업 1천명(8.5%) 감소하는 등 주요 산업에서 위축세가 나타났다.

전남 또한 도소매·숙박·음식점업에서 1만명(5.4%)이 줄어든 데 이어 농림어업도 1만4천명(7.4%) 감소했으며 건설업 역시 2천명(1.9%) 줄

어드는 등 핵심 업종 전반에서 고용 감소 흐름이 이어졌다.

특히 자영업자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지역 자영업자 수는 41만9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명 줄어 들었다.

이 가운데 광주는 5천명(3.5%), 전남은 1만5천명(5.0%) 감소했다.

또한 자영업자 수는 올해 들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1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만9천명(광주 5천명·전남 1만4천명), 2월에는 2만2천명(광주 6천명·전남 1만6천명)이 각각 줄어드는 등 올해 들어 서민 총 6만1천명이 감소해 자영업 전반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실업자는 지역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광주는 실업자 수가 2만4천명으로 전년 대비 1천명 감소했으며 실업률도 3.0%로 0.1%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전남은 같은 기간 실업자 수가 2만7천명으로 4천명 증가했고 실업률도 2.6%로 0.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태호 기자

## 중기부, 수출바우처 1천300억원 투입

### 중동 피해기업 우선 지원...최대 1억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와 유가 급등 등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1천300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800억원 규모의 일반바우처로 약 2천300개사를 지원한다.

특히 중동 지역 분쟁으로 현지 수출에 차질을 겪고 있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해 시장 다변

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종과 K-뷰티, K-패션 등 전략 품목의 기업에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수출 규모에 따라 최대 1억원이다.

500억원 규모의 물류 전용 바우처는 기존 중동 지역 중심에서 국제 운송 이용 실적이 있는 전체 중소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바이어 요청에 의한 무상 샘플 운송비, 종합

물류대행 서비스, 해외광고 임대료, 선적 전 검사료 등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이미 수출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라도 물류 전용 바우처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중기부는 서면 평가 방식의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기존 3개월 이상 소요되던 선정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정산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수출바우처 누리집(www.exporthvoucher.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안태호 기자

## 광주국세청,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 광주경제자·특허기술진흥원과 MOU

### 세무·특허·혁신 지원 협력체계 구축

광주지방국세청은 광주경제자유구역청, 한국특허기술진흥원과 함께 15일 광주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광주경제자유구역 내 첨단 전략산업 기업 육성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광주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을 위한 산업 지원, 특허 정보 제공, 세제 지원까지 기업 성장을 위한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입주기업의 기술 수요를 파악해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 지식재산 지원을 요청한 동시에 경영 및 세정,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상시 수집해 각 기관에 전달하는 통합 소통창구를 운영한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특허 조사분석, 특허 정보와 DB를 제공하고 특허 관련 분야 기술 교육 훈련 지원을 수행한다.

광주국세청은 광주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 지원 요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 감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기업이 연구개발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공제 감면 컨설팅'을 통해 세제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이 세무 부담을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은성 기자



광주은행이 15일 기부를 통해 제공받은 담례품을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 재기부' 행사를 실시했다. 사진은 박만 광주은행 노동조합위원장(오른쪽)과 정일선 광주은행장(왼쪽)이 담례품 재기부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광주은행 제공>

## 광주은행,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 재기부로 지역사회 상생·온정 실천

### 정일선 은행장 등 임직원 자발적 참여

광주은행은 15일 정일선 광주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기부를 통해 제공받은 담례품을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 재기부'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 증진에 활용하는 제도다.

기부자는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44%, 2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담례품도 제공받을 수 있다.

광주은행은 지난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오고 있으며, 올해 3월부

터 4월까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집중 참여기간을 운영해 자발적인 기부문화 확산에 힘썼다. 그 결과, 약 1억2천만원의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며 지역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재기부 행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다시 지역사회 나눔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제공받은 약 1천만원 상당의 담례품을 광주·전남 지역 사회 복지시설에 다시 기부해, 지역과 함께 상생하고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지역 대표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지역과 함께 성장해온 광주은행이 나눔을 통해 다시 지역사회에 보답할 수 있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과의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따뜻한 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 약속

**RE100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갑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 묘 이장 · 개장

가족묘 조성 / 개장 / 묘지이장 / 유골함 / 자연장

맞춤형 묘지이장 전문 ☎ 문의) 062-464-3466